

완주군, 농업생산기반 정비

영농환경 개선 · 예산 조기집행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완주군이 영농환경 개선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할 방침이다.

3일 완주군은 농촌생활환경 정비비 비롯해 농수로 정비, 저수지 보수·보강 수리시설 개·보수 등 178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이번달까지 착공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 추진될 사업 규모는 64억8800만원에 달한다.

사업별로는 봉동 제천마을 및 추동마을 배수로 정비 등 25건의 농수로 정비에 13억6800만원, 구이 하천마을 세천정비, 용진 지압 도로정비공사 등

14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7억4000만원 등이다.

또한 화산 신평마을 농로 포장 등 55건의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에 12억원, 이서 미산제 등 4건의 저수지 보수·보강에 5억9100만원, 구이 광곡제 등 4건의 수리시설 개·보수에 5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이서 모교자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74건, 20억5500만원도 동시에 추진된다.

완주군은 올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이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3월 초순에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풍년 농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전체 사업의 90%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생산기반을 적극 추진해 영농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은 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을 가졌다

아름다운 산림 가꾸고 지켜요

무주군 산림 근로자 발대

무주군은 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산림분야 근로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산림분야 근로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산업안전기술지도원이 강의하는 안전교육을 듣고, 결의문과 각 사업장별 운영지침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에는 △산불수집 활용과 경제난 극복에 협력할 것,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에 앞장서 나갈 것,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에 앞장서 출장한 산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모았다.

군 산림분야 근로자들은 "우리 군의 최대 자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하게 됐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우리 무주가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고지로서의 명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많은 바 분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비롯해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과 △도시녹지관리원, △병해충 예방 방제단, △숲 해설가, △임도관리원,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가로수 관리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9개 산림분야에서 150여 명이 산물수집 확대와 산불제로화, 산림보호와 관련한 일을 하게 된다.

황 군수는 "산림은 기후변화와 산업화, 경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그런 자원이 우리 군에는 전체 면적의 82%나 있다"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쟁력,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자신과 지역, 국가와 인류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생충 없는 진안 만들기 '탄력'

군,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수행기관 확정 용담댐 · 섬진강 인근 주민 대상 검진 실시

진안군은 201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수행기관으로 확정되어 용담댐 · 섬진강 인근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퇴치사업을 28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실시한다.

기생충 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327명 조사한 가운데 223명이 양성자로 발견 4.2%의 양성률과 93.3%의 치료율을 달성해 2015년도 전국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간흡충 감염이 높은 용담댐 주변 6개면(용담, 안천, 풍향, 상진, 정천, 주천)과 섬진강 주변 4개면(백운, 성수, 마령, 부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퇴치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 · 하천 인근의 40세 이상 주민과 식당 및 어류채집 어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 집중 표본조사를 통해 간흡충의 장내기생충 5종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대상자의 대변 가검물을

채취하고 설문서를 작성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사를 의뢰 검사결과 양성자로 확인 될 경우 치료제를 무료로 처방하고, 2차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치료여부 확인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물고기를 다른 식기류를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아 체내에서 간흡충증, 담관암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이번 조사가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흡충 양성자 발견 및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기생충 ZERO'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월례조회 개최 "소통과 공감 생활화를"

무주군은 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경쟁력 있는 공직 소통하는 행정을 위한 3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3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월례조회는 '복을 부르는 35가지 지혜'에 대한 영상 시청과 소양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이장호 씨(무주읍 괴목로)와 김창중 씨(안성면 사전길)가 성실납세자 유공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황 군수는 월례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3월은 소통과 공감, 협업의 생활화를 먼저 이루



는 한 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일제정리 등 선거 관련 행정업무 추진과 조기집행, 봄철 소각 산물 특별예방대책,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영농준비 지원에 최선

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연 초 방문에서 읍면민들과 나눴던 애로 및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현장방문을 통해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500원 통학택시 운영

중 · 고교생 146명 대상

진안군이 2일부터 '농촌지역 중 · 고등학교 대상 통학택시'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학교와 점도 4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요금은 탑승장소에서 학교까지 5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운영은 학기종료로 한정하며 휴일 및 방학기간은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 9개 학교 146명(중학생 90명, 고등학생 56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인택시 · 법인택시 및 25인승 승합 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등교를 돕는다.

또한 오는 3월 중순부터 백운면 소

재지 내에 사전예약제로 운행되는 수요응답형버스(DRT)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환승거점 혹은 면소재지로 운행이 제한되며, 수요응답형버스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향후 대중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향로 진안군수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등교를 도우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교통 소외지역에 군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장수군, 예산 1065억 의결

장수군은 최근 김윤섭 부군수를 비롯해 심의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안을 위한 '장수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정분야 571억원 ▲축산분야 132억원 ▲산림분야 92억원 ▲건설분야 158억원 ▲농업기술분야 112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1,065억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김윤섭 부군수는 "지구온난화와 FTA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춘 고품질 농 · 축산물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농림축산식품사업 국가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군 야생초연구회 3·1절 기념 들꽃탐사

완주군 야생초 동아리 회원과 경천 싱그랭이 마을 주민, 시민행동21 꽃다지 등 80여명이 함께한 경천 싱그랭이 들꽃탐사가 지난 1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일제강점기 빼앗긴 들꽃을 바로알기, 들꽃탐사 해설 강좌, 싱그랭이 요양원을 주민과 함께한 1시간 생태관광 발전방향 논의 등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가 함께한 행사로 진행됐다.

3·1절을 기념해 실시한 이번 야생초연구회 들꽃 탐사는 청산별곡에 나오는 '머루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금강초롱 등 수많은 꽃들이 일제강점기 일본 이름으로 학명이 붙여진 이유를 학습했다.



장수 오미자주, 주류 대상 수상

장수의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장수오미자주가 2016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수군은 (주)알에프(대표이사 배종술)에서 오미자를 원료로 빚은 우리술 '장수 오미자주'가 조선비즈에서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우리술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주)알에프는 장수군 오미자 농가의 안정된 소비와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고자 오미자 발효를 통한 와인 및 과일주 생산을 공급하고자 2009년 설립된 회사다.

특히 '장수오미자주'는 장수의 오미자를 차츰 발효 숙성한 오미자와인인 담양대나무 숲으로 6번 여과해 맑고 깨끗한 주정을 첨가해 만든 과일주 오미자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완주군, 공평과세 실현 총력

완주군은 2016년 내실 있는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 은닉되는 세원을 발굴해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 정착 및 신뢰제정구현과 성실 신고 납부 체계를 확립한다.

고액채납자 및 고가재산 소유자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며, 성실 납세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및 농어촌사회공헌인중기업, 지역 우수기업 등은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감소기업 육성 및 법인의 경영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오미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입과
063-430-2951